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34

# 도둑질을 한 아간

(여호수아 7:1~8:29)



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!  
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 
감사드리며 모두 기뻐했어요.

이 기세를 타고, ‘가나안’의 여러 지역으로  
들어가고 싶어 했죠.  
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함께 온전히  
기뻐할 수 없었어요.

바로 ‘아간’이란 사람이었죠.  
그 시간 ‘아간’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 
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.

**“내가 한 짓을 아무도 못 봤겠지?  
그래, 못 봤을거야...”**

여러분, 아간이 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걸까요?  
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 
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

**“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다들 명심하시오!  
누구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금이든, 은이든, 보석이든  
여리고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.  
그 모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것 입니다.  
그러니, 절대로 손을 대선 안 될 것입니다  
명심하시오.”**

하지만 그날 아간은, 여리고의 한 집에 들어가서  
값나가는 물건들을 몰래 챙겼어요.  
이 물건들을 들기지만 않으면  
하나님도, 그 누구도 영원히 모를 거라 생각했죠.

과연 그랬을까요?

본격적으로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는  
‘아이’라는 지역에 정탐꾼을 보냈어요.

**‘아이’ 땅을 살펴보고 온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죠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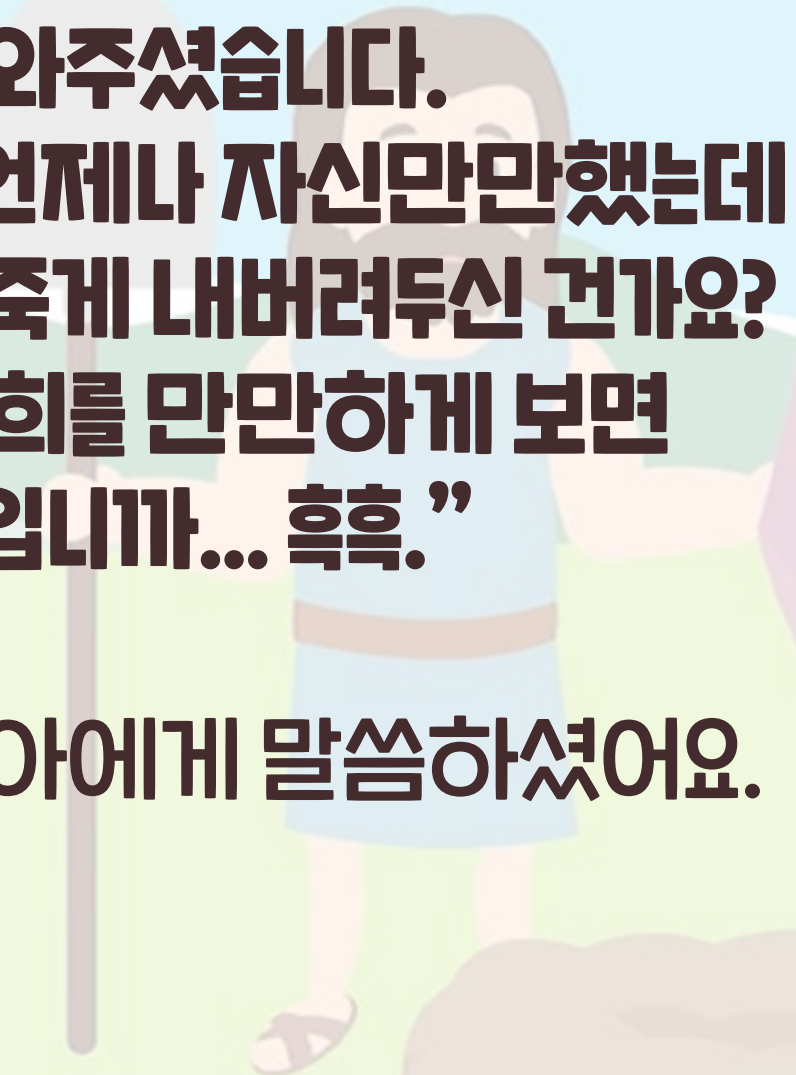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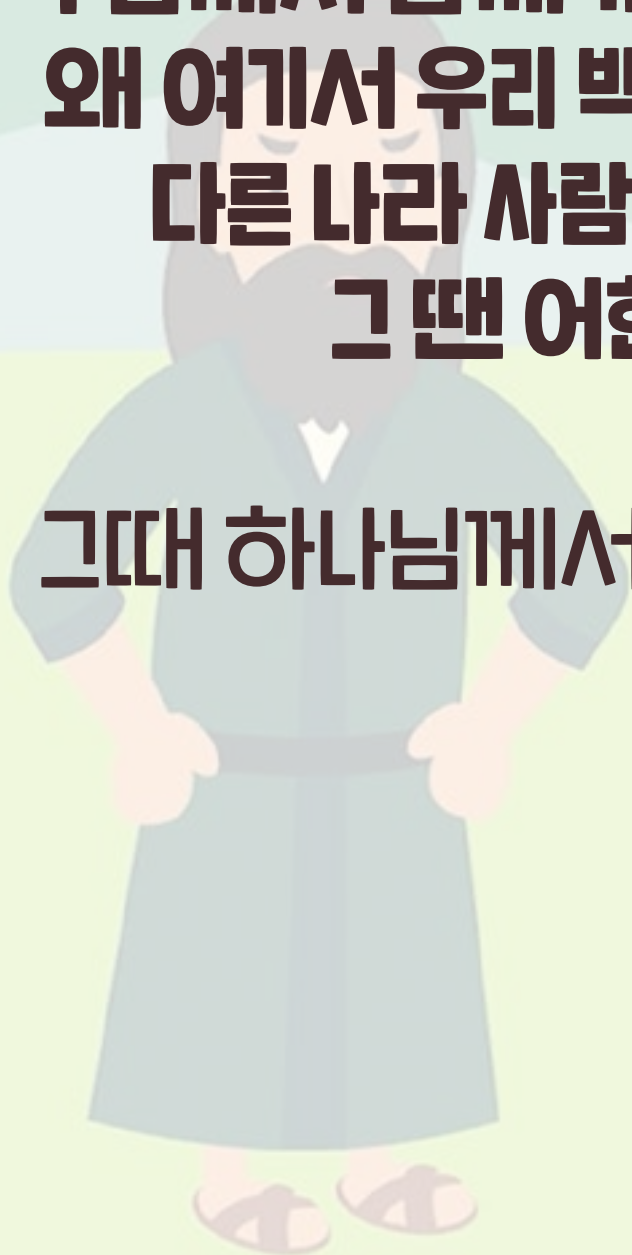
**“여호수아님! ‘아이’는 완전 찢고만 도시였습니다!  
거기 우리랑 싸울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.  
우리도 뭐 대충 2~3천명만 골라서 보내면  
‘아이’ 땅을 차지하는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요!”**

**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 정도의 병사를 ‘아이’로 보냈죠.  
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!  
게다가 아이 사람들이 어찌나 끈질기게 쫓아오는지  
도망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.**

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져서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어요.

**“주님, 주님께서서는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 
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 
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언제나 자신만만했는데  
왜 여기서 우리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두신 건가요?  
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희를 만만하게 보면  
그땐 어한단 말입니까... 흑흑.”**

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

**“여호수아,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.  
내가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따로 챙기지  
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.  
누군가 나와의 약속을 깨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챙겼단다.  
그래서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.”**

**그제야 여호수아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.**

**다음 날 아침,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 
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.  
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범인을 알려주셨고  
그건 바로 ‘아간’이었죠.**

**“아간,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 
사실대로 고백하거라.  
네가 한 일을 숨길 생각이라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.”**

**그러자 아간이 울상이 되어서 말했어요.**

**“제,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.  
여리고의 한 집에 들어갔더니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 
아름다운 겹옷이 한 벌 있지 않겠습니까.  
그게 너무 탐이 나서 그만... 슬쩍 챙겼습니다요...”**

그런데,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.

**“그, 그리고 또... 그 집에 은이 한 2-3kg 정도 있어서  
그걸 또 챙겨 왔습니다...  
그리고 그 옆에 금이 또 한 덩어리가 있지 않니까...  
내친김에 그것도 함께 가져 왔지요...  
하, 하지만 그것들은 멀쩡히 잘 있습니다!  
제 천만 아래 땅을 파보시면  
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그대로 묻혀 있을 겁니다..”**

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시켜 아간의  
천막 아래를 파 보니 정말이었어요.  
하지만, 물건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 
아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죠.

**“아간, 네가 어찌 우리 이스라엘에게  
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냐.  
너의 죄가 무척 크다.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 
고통을 주실 것이다.”**

**그렇게 도둑질을 한 아간은 처벌을 받고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.**

**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 
‘아이’ 땅을 차지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.  
이번엔 여호수아가 수만 명의 군사들을  
직접 이끌고 나섰는데 여호수아는 5천 명의 병사들을  
따로 모아서 성 뒤편에 몰래 숨어있게 했어요.**

여호수아의 군대가 나타나자 기세가 오른  
‘아이’사람들은 맹렬하게 전투를 걸어왔어요.  
그러자 여호수아는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패배한 척  
연기를 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죠.

**“저기 이스라엘이 도망간다!  
녀석들, 저번에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 
정신 못 차리고 또 쳐들어오다니 말이야.  
이번에야말로 한놈도 바바짐없이 다 잡아버려라!”**

‘아이’의 거의 모든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뒤를 쫓아왔고  
순식간에 성 안에는 병사가 몇 명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!  
그리고 바로 그때, 숨어있던 5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 
빈 성 안을 그대로 차지해 버렸죠!

이미 밖으로 한참 나와버린 ‘아이’의 군사들  
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저 멀리에 있는 성은  
이미 불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.

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 
멋진 작전을 세웠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.

‘아간’의 죽음, 그리고 ‘아이’에서의 승리를 본  
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 
순종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답니다!